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9. 27.(수) 배포즉시 배포 2023. 9. 27.(수)

산업부, 대규모 인적 쇄신으로 국정과제 이행에 드라이브 건다

- 9. 27,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인사 단행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9월 27일부로 전체 10개 실장급 직위의 60%인 6개 직위를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였다.

실장급으로 격상된 대변인에는 과거 산업부 대변인 재직경험으로 전략적 홍보와 언론 소통 역량이 뛰어난 최남호 현 기획조정실장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에는 무역·통상 경험이 풍부하여 불공정무역행위 관련 이해도가 높은 천영길 현 에너지정책실장을 임명하였다.

기획조정실장, 산업정책실장, 에너지정책실장, 통상차관보 등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의 핵심 실장급 직위는 국장급을 승진 임용*함으로써 신임 방문규 장관 부임과 동시에 새로운 진용으로 산업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기획조정실장 이원주(40회), 산업정책실장 이승렬(40회),
에너지정책실장 이호현(39회), 통상차관보 양병내(39회)

기존 행시 37회와 38회 위주의 실장급 직위에 행시 39회와 40회를 적극적으로 등용하여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유도하고 조직 내 긴장감과 활력을 높이었다. 특히, 기획조정실장과 산업정책실장에는 산업부 최초로 업무성과가 탁월한 행시 40회 국장을 승진 임용하여 현장감과 속도감 있는 국정과제 이행으로 수출확대,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 및 규제혁신 등에 박차를 가하고, 에너지정책실장에는 전력·자원·탄소중립 등 에너지실 주요 담당 업무를 두루 거친 현 전력정책관을 임명하여 현실성 있는 에너지 혼합(믹스)을 재정립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도록 '능력·성과·전문성' 중심의 인사를 단행"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하여 산업부가 새로운 각오로 합심하여 전력을 다해 줄 것" 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운영지원과	책임자	과 장	정재환 (044-203-5050)
		담당자	팀 장	송영상 (044-203-506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